

뉴스 & 뉴스

생명운동 작은대학 개강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은 10일부터 20일까지 생명운동 작은대학을 개강한다. 불교환경교육원의 전문환경교육프로그램은 10일부터 15일까지 경북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깨달음의 장이 진행되고 16일부터 20일까지 4박5일동안 서울 김동 두산수련원에서 생명대학이 열린다. 주요프로그램은 '말레니엄시대 새로운가치와 생명운동', '환경윤리와 생태적 가치', '생명운동의 철학과 이념', '생태주의와 사회운동'.

복지관 편파 위탁 사과

경기도 안산시가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자 선정과정에서 불공정을 제의시킨 것과 관련 안산불교연합회(회장 지해, 현수사 주지)에 공식 사과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본지 200호 2면 기사 참조)

박성규 안산시장은 지난 7월12일 시내 한 식당에서 안산불교연합회장 지해스님, '종교편향성 시행령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위원회' 능혜 스님 등 연합회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종교간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을 떠나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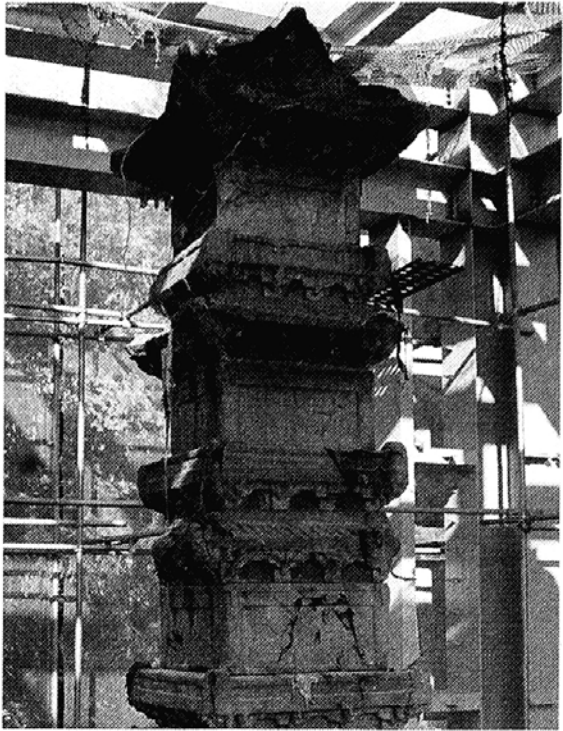
20일 '도농공동체' 토론회

불교 도농공동체운동본부추진위원회(위원장 원혜, 이하 추진위)가 9월 11일 창립을 앞두고 자료집 발간 및 지역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추진위는 7월 26일 교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도농공동체 운동이 대중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오는 20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연기적 세계관으로 본 도농공동체 운동'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8월 중순부터 창립까지 한달간 일정으로 호남·영남 등 6개 지역에서 지역간담회를 갖는 한편 이달말까지 자료집을 낼 계획이다.

'김 소장' 공정재판 요구

전 육군 101여단장 김태복 소장에 대한 고등군사법원 7월 23일 열린 1차 공판과 관련 조계종 종교권향대책위원회와 대한불교청년회가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교권향대책위원회(위원장 현진·원혜)는 7월 24일 "군 검찰이 2심 공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교 편향적 논리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군 검찰과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안호)도 27일 "군부는 불교탄압 작전을 즉각 중지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군부대 인사사건, 김태복 장군 사건 등은 군부의 지휘 및 방호에 자행되었다"며 국방부와 정부의 군부대내 종교 차별적 부당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경·도필선 기자



국보 2호인 서울 탑골공원에 위치한 10층석탑에 불이 붙어 상단이 검게 그을리는 등 훼손됐다. 원각사지석탑은 보호용 유리벽을 설치중인데 7월27일 이 공사를 벌이던 중 탑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감산 전에 용접용 불꽃이 옮겨붙어 불이 일어났다. 관리사무소측이 자체 소화기를 동원 10여분 만에 진화했다고는 하나 섬세하고 정교한 조각과 비례미로 탑중에서도 걸작으로 손꼽히는 국보 원각사지석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사진제공=경향신문)

사찰환경 수호 서명운동 전개

범불교대책위 결성...전사법 개정 입법화 추진

사찰환경수호를 위한 범불교대책위원회(공동대표 보광, 여연, 성조)는 7월 28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총무원장 고안스님을 비롯한 대책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식을 갖고 전사법 개정을 위한 천만불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관련 인터뷰 4면). 이날 결성식에서 고안스님은 "민족의 문화유산인 사찰의 주변 환경이 침해되고 훼손되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사찰환경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불교대책위는 앞으로 △중양종회 결의문 채택 △민간환경단체와 연대 성명서 채택 △분장사찰순례 및 결의대회 개최 △환경친화사찰 만들기 등 공회 △국회에 전통사찰보존법 개정법안 상정 등의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민영교도소 설립 '가시화'

조계종 "교정시설 선교수단화 우려"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을 위한 법률(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7월 초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조계종총무원 기획실은 법무부의 민영교도소 관련법 제정과 관련, 법무부 내부의 필요보다는 한기총의 로비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며 교정시설의 선교수단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영교도소 설립에 앞서 교정프로그램의 민간위탁 확대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수용자의 수용관리·교정교육·직업교육·교도보호 등 교정업무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가능 △위탁 계약기간은 교도소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10년 이상 20년 이내, 기타의 경우는 1~5년 △위탁업무 부족합시 계약 해지 가능 △교도소 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때에는 교정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국가는 교정법인에게 매년 민영교도소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 △수용자의 작업수입은 원칙적으로 교정법인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은 당해 교정법인이 자율적으로 임명 △법무장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공무원 파견해 업무 지원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8월 까지 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성보도난방지 묘책 찾자

조계종 '백서' 발간...불교유산보존연구 설립키로 '비지정문화재 절도 처벌강화' 등 법개정 요구

한해 평균 28건의 성보문화재가 도난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찰문화재 보호에 이상이 걸렸다. 국보의 56.1%, 보물의 65.3%, 지정문화재의 50.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문화재중 성보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사찰문화재 도난건수는 전체문화재 중 절반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84년 이후 6월까지 도난당한 성보문화재 316건 가운데 되찾은 성보는 불과 20건에 불과. 사찰문화재 불법유출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조계종 총무원(원장 고산)이 최근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 백서>(이하 백서)에서 분석된 것으로 지난 84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15년동안 전국 사찰에서 도난당한 성보는 총 316건 453점으로 집계됐다(관련 기사 11면). 도난 문화재에 대한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한 취지로 발간된 이 백서에는 도난성보에 대한 사진과 도난경위 등 상세한 정보가 수록. 도난품 회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난백서에 따르면 불교문화재 186건 275쪽으로 가장 많으며, 불교조각이 61건 109구, 탑과가 18건, 기타 51건으로 이중에는 보물, 시도유형문화재 등 지정문화재도 24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북 111건으로 가장 빈번했고 전남 60건, 경남 36건, 전북 34건, 충남 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분사별로는 금산사(17교구 분사) 31건, 직지사(8교구 분사) 30건, 고운사(16교구 분사) 26건, 동화사(9교구 분사) 21건 등의 순이며, 신흥사(3교구 분사)와 관음사(23교구 분사) 등은 도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주목된다. 성보문화재 도난 건수는 91년 48건을 최고로 잡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올 상반기 들어서 12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들어 다시 사찰문화재가 도난 위험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홍암 탕화 밀거래 교수등 3명 붙잡아

10여년전 도난당한 은해사 백홍암 감로왕도 탕화를 밀거래한 지역 고미술품 협회 간부와 대학 교수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23일 부산

'조계사 공금횡령' 합동조사 이뤄질듯

조계사 부주지 지홍스님은 30일 前총무 선광스님이 7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안한 공동조사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선광스님은 기자간담회에서 "사중운영과 각종 불사는 모두 총무원과 종회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왔으며, 한 점 의혹의 여지도 없다"며 "검찰 조사가 진행될때만 당당하게 응할 것"이지만, 이에 앞서 양측(전·현 재산관리인)이 공동으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진상조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7천만 겨레 하나되는 통일세상

대불련, 18차 한국불교 1600년대회 열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한승희, 이하 대불련)는 7월29일부터 8월2일까지 동국대학교문화관에서 조계종 조계종 총무원장, 법종 총무원장 등 종단 관계자들과 5백여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제18차 한국불교 1600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하나에서 칠천만으로 이어가는 통일세상! 청년불자가 함께합니다"라는 주제로 대불련 조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21세기 통일한국을 위한 대불련의 역할과 정체성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29일 입재식에서 한승희 회장은 "불교사랑과 조국사랑, 법우사랑의 참 의미를 일깨우고, 대불련과 불교의 희망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남과 북이 하나되고 나와 칠천만 겨레가 하나되는 통일세상을 만드는 청년역군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제18차 한국불교 1600년대회는 오리엔테이션, 통일민들기 공동체 한마당, 통일강연 및 비디오행, 통일전망대 및 임진각 답사, 포교대회 선포식 및 실천대회, 대불련 가요제 및 대공제, 자자포살 등으로 진행되고 2일 회합했다. 도필선 기자

Advertisement for Daewon Buddhist University. It features the text '직장인을 위한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Evening 2-year program for office workers at Daewon Buddhist University) and '동신·출강 신입생 모집' (Recruitment of new students for Dongshin and Chugang). It lists various courses, faculty member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Hwangdo Sambaekcho (황토삼백초). It features the text '새로운차, 꼭 드셔야 할 차' (New tea, you must drink it) and '황토삼백초' (Hwangdo Sambaekcho). It describes the benefits of the tea, such as being healthy and refreshing, and includes a list of ingredients and contact information.